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북도 국정감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벼 병해충 재난지역 지정을”

송지용 도의회 의장, 완주지역 병해충 발생 현장서  
“정부-도, 신속 피해지역 조사·지원책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1)이 “도내 벼 병해충 발생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송 의장은 13일 완주지역 벼 병해충 발생 현장에서 완주군의회 전북도 농정당국,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피해 농민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유동근 농민은 “수확기 병해충 확산으로 자식 같은 벼를 모두 잃어야 할 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9월 출수기에 잦은 비가 내려 약도 쓸 수 없었고 태풍과 야간 저온현상까지 겹쳐 병해충이 급속도로 확산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벼 병해충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에 지정·선포하고,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신동진 벼는 보급된 지 20년 이상 된 품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응력이 떨어져 신동진 품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도와 농업기술원 등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계약재배 등 선제 대응이 미흡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협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신동진 대체 품종 개발 및 농가 재배 확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지용 의장은 “벼 병해충 발생은 폭염과 폭우처럼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농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며 “정부와 도 농정당국은 신속한 피해지역 조사와 지원책 마련, 벼 품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병해충 적용 범위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 대비 벼 이삭도열병은 26.5%(3만376ha), 세균벼알마름병 9.3%(1만684ha), 깨씨무늬병 7.2%(8,243ha)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벼 수확량도 예년보다(538kg/10a) 5~8%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13일 완주 벼 병해충 피해 현장을 찾아 이들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신속한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 “재난지역 선포 벼급가는 방안 추진하라”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북도에서 확산된 논벼 병충해 피해 관련 전북도의 늦장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재난지역 선포에 벼급가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전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9월 기준, 전북도 전체 벼 재배면적 11만450ha 중 43.1%에 해당하는 4만9,308ha에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깨씨무늬병 등의 병충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작년 장마·태풍으로 수확량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의 벼 수확량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늦장 대응이 피해 규모를 더욱 배가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8월 중순부터 이어진 긴 가을장마로 6번의 방제작업이 효과

‘벼 병해충 쟁점’ ... 국회 행안위, 전북도 국정감사

민주 박완주 의원 “쌀 정책 전문성 갖춰야”

국힘 이명수 의원 “현 피해 상황 조사 시급”

가 없다며 전북도 소관 부처에 병해충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지만, 도는 피해가 일파만파 커진 최근에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뒤늦은 조사 착수로 아직 피해면적의 규모나 피해 농가 수 생산량 감소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면서 “피해 농민에 대한 구제방안 수립 또한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전문가들이 이번 벼 해충 피해 중 가장 피해규모가 컸던 이삭도열병이 전북지역 벼 지배면적의 64% 이상을 차지하는 신동진 품종에 취약하다”고 말했다며 “앞서 종종 지적돼왔던 품종 다변화 등

선제적인 정책 연구가 행해졌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 품종이 오랜 기간 넓게 분포돼 있으면 병충해나 기상재해에 취약하기에 품종 다변화 추진이 시급하다”며 “전북도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큼, 벼농사에 대한 도의 정책 수준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 수준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병해충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또한 전북도는 재난지원 선포와 벼급가는 도 차원의 전폭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도 “전국 최대 곡창지대 전북

도의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확산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 재배면적 5만2,480ha중 김제시가 1만 523ha로 가장 심각하며, 정읍시 6,102ha, 고창 5,900ha, 군산 5,859ha, 부안 4,695ha 순으로 서남부권이 병충해의 직격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예년 대비 5~8%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수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등급을 받지 못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와 지자체가 협력해 현재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북도에서 고품질의 신동진 품종 생산 확대를 추진한 만큼, 피해 결과에 따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병충해 대피해는 명백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해 매입하는 등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이 맛이 청정라거다!**

리얼탄산100% 청정맥아100%

청정라거-테라  
**TERRA**  
FROM AGM